제 76호 개별 지도하기 1

학기 중반부터는 강의가 안정 궤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 시험도 치뤘고 숙제도 여러 번 제출되고 되돌려졌기에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수준을 아실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은 교수님의 스타일과 기대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도 어느 정도 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뛰어나게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거의 구제불능에 가까운 학생도 몇 명 있을 것입니다. 학생 수가 많을 경우에는 성적 분포가 전형적인 벨 커브를 형성하겠지요. 그러나 가끔 걱정스러운 분포가 나오기도 합니다.

(1) 최고 성적과 최저 성적의 차이가 큰 경우 (large standard deviation)
(2) 잘하는 그룹과 잘 못하는 그룹으로 양분화 된 경우 (bi-modal distribution)
(3) 분포가 비대칭적으로 기울어져 평균 점수가 무척 낮은 경우 (skewed distribution)

이런 경우에는 과연 누구한테 수준을 맞추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ㄱ) 평균에다 맞추어 학생 대다수를 만족시킨다.
(ㄴ) 잘하는 학생은 스스로 따라 올 수 있으니까 못하는 학생들에게 맞춘다.
(ㄷ) 투자는 가능성 있는 데에다 해야 하니 잘하는 학생에게 맞춘다.
(ㄹ) 평균 이상에다 맞추어 학생들의 수준을 끌어올린다.

정답은...글쎄요. 만약 한 반에 학생이 열 명 정도 밖에 없다면 교수님께서 강의를 어느 한 수준에 맞추지 않고 분명히 개별지도를 시도하실 것입니다. 학생의 다양한 기초 지식, 기본 실력, 학습 스타일 등을 고려하는 개별지도는 교육의 효과를 높여주니까요.

그러나 요즘 강의실에는 학생 수가 60명, 120명, 또는 300명이나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별지도란 거의 불가능하겠지요.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수님께서 별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에 강의를 어느 한 기준에 맞추게 됩니다.

개별지도를 대규모 단위로 실시하기 위한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Self-paced instruction, web-based modular course, video tape delayed lecture 등 컴퓨터나 첨단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이용해서 학생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진도를 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첨단 강의법은 대체로 3A (anytime, anywhere, anyone) 기본을 갖추었습니다

.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학생이 다 함께 한 시간에 한 곳에서 모일 필요 없이 각자 학습 효율이 높은 시간에 강의를 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필요하면 같은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반대로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에 민감한 요즘 학생들의 주의력을 끌기 때문에 학습 동기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첨단 강의를 이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첨단 시설이 매 강의실마다 갖추어져 있지 않고, 또 어떤 강의는 이런 방식의 교육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 첨단 강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수님도 몇 되지 않을뿐더러 웹-강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과 원격 강의의 효과성이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라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망설이게 됩니다.

남은 두 방법은 low-tech이지만 많은 돈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어느 정도의 개별지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이며 다음 호에 설명하겠습니다.

<<잔소리 코너>>
(ㄱ) "평균에다 맞추어 학생 대다수를 만족시킨다"는 대량생산적 교육 방식에나 걸맞습니다.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에는 "평균적 만족"이란 개념은 별로 쓸모 없습니다. 평균적 만족에는 평균적 불만족이란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ㄴ) "못하는 학생들에게 맞춘다"는 보호적 사회주의 사고방식에나 걸맞습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자생력이 필요합니다.
(ㄷ) "가능성 있는 학생한테 투자한다"는 자본주의 엘리트 사고방식에나 걸맞습니다.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전략은 언젠가 되돌아와 뒤통수를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ㄹ) "학생들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독재적 군국주의 사고방식에 걸맞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지식산업시대에는 억지로 시켜서 목적에 달성하는 공부는 효과가 없습니다.

분석이 너무 거창하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교수님들께서는 사회와 기업으로부터 대량생산 체제에서 다품종을 생산해내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 대 교수 비율이 높을 경우 무리한 요구지만 개성과 특성, 다양성이 중요한 시대에는 학생 모두가 발전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율이 좋아질 때까지 마냥 미룰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 조벽, 2000